

유구민족독립총합연구소

설립취지서

유구섬에 민족적 뿌리를 가진 유구민족은 독자적 민족이다. 15세기중반의 포르투갈인, 토매 필래스가 쓴 ‘동방제국기’에는 유구민족은 레케오인, 고래스인이라 불리어,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며, 노예를 사지 않으며, 전 세계와 바꾼다 해도 자신들의 동포를 팔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죽음을 건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유구국은 이전에는 독립 국가였고, ‘역대보안(歷代寶案)’에서 밝혔듯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19세기 중반까지는 서구 제국들과도 우호적인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현재, 유구섬에도 유구민족이 살고 있으며, 일본, 그리고 세계각지에서도 유구 민족이 생활하고 있다. 5년에 한번 열리는 ‘세계우치난츄(유구민족)대회’가 유구(오키나와)에 개최되어, 2011년에 다섯 돌을 맞았다. 2012년에는 브라질에서 ‘제1회 세계 청년우치난츄대회’도 개최되었다. 유구민족은 이민지역에서도 원래 섬의 것을 잊지 않고, 유구의 문화, 언어를 지키고, 유구민족 아이덴티티의 뿌리를 뺄려, 세계속에 유구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다른 한편, 1609년의 사쯔마 침공을 계기로 1879년의 명치정부에 의한 유구병합 이후, 지금까지의 유구는 일본 그리고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있다. 유구민족은 국가 없는 민족, 소수민족이 되어 일·미 양정부 그리고 다수국가에 의한 차별, 착취, 지배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것은, 예를 들어 1945년에 유구의 땅을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지상전의 장(버림돌)으로 한 점, 그리고 1952년 자신들의 주권회복을 위해 유구를 저당으로 맡긴 점, 미군정부에 의한 전후 27년간에 걸친 억압적 지배, 그리고 1972년 이른바 일본 ‘복귀’ (=일미밀약을 함께한 유구재병합)후에도 일미가 ‘일본국토’의 0.6%의 유구에 미군기지의 74%를 강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일련의 것, 1997년, 미군용지특별개정에 의해 유구의 땅을 강탈하고, 전42의회의 반대결의, 오키나와현의 지사와 모든 시(市)·정(町)·촌(村) 장, 유구민족 한사람 한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일본과 미국에 의해 오스프레MV22가 유구에 강행 배치되었다. 이것 또한 유구차별이자 식민지배이다. 일본인은 유구를 희생시켜 ‘일본

의 평화번영'을 앞으로도 향유하고자 한다. 이대로는 우리 유구민족이 앞으로도 자손대대로 평화롭게 살 수 없고, 전쟁의 위협의 불안을 떨치고 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기업, 일본인이주자에 의하여 경제지배가 확대되고, 일본정부가 책정한 진흥개발계획의 실시에 의해 유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민족문화에 대한 동화정책에 의해 정신적 식민지화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노예적경애(境涯)이다.

유구민족은 원래 독자적인 네이션 (nation、peoples、민족、인민)이며, 국제법으로 보장되어진 '인민의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주체이다. 유구의 지위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유구민족뿐이다. 유구민족은 독자의 토지권, 자원권, 생존권, 환경권, 발전권, 민족자치권, 내정권, 외교권, 교육권, 언어권등의 집단적 인권을 가진 민족이다. 유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 모든 군사기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유구가 세계중의 각나라와 지역 민족과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유구민족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평화와 희망의 섬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유구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하여, 유구민족독립총합연구학회를 설립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유구섬에 민족적 뿌리를 가진 유구민족에 한한다. 본 학회는 '유구민족의, 유구민족에 의한, 유구민족을 위한 학회'이다. 본 학회는 학제적인 관점으로부터 유구독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학회를 짊어지는 자는 유구의 독립을 추구하는 모든 유구민족이다. 학문은 일부의 연구자에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유구민족은 당사자가 직면하고 있는 식민지주의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과 방법에 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여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문이 태어나고, 심화되어 유구민족이 참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유구민족의 독립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의 독립을 전제로 유구의 독립에 관한 연구 토론을 행한다. 독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세계 식민지독립의 독립의 과정, 독립전후의 경제정책 및 정치 행정 국제관계의 관련성, 유구민족에 관한 개념규정과 정체성, 유구어의 부흥과 언어권의 회복, 예술, 교육, 젠더, 복지, 환경, 소수민의 차별, 격차문제, 유구에 있는 일본·미국식민자의 문제등, 유구독립에 관한 다각적이고도 총합적인 연구 토론을 행하고 이것들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

나아가 본 학회에서는 같은 식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괌, 대만, 하와이, 뉴카레도니아, 프랑

스영 폴리네시아태평양섬들, 스코틀란드, 카타루냐, 후란돌, 바스터, 코르사카등의 서구지역 등과, 독립이 된 태평양도서국의 사람들과도 연구교류를 촉진해, 유구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학회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UN의 각종 위원회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유구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도 전개한다. 일본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한 유구민족은 스스로 나라를 세움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섬, 바다, 하늘, 자손, 선조의 혼을 지켜야 한다. 새로운 유구라는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일본정부 일본인 동화되어버린 유구민족, 각종의 연구자들과의 논쟁에 이기기 위한 이론을 갈고 닦기 위해서도 유구민족독립총합학회가 지금처럼 영원된 적은 없다.

우리는 국제인권규약공통제1조에 규정된 ‘인민의 자결권’에 근거하여 유구독립이라는 본래의 정치적 지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 나아가 제27조 ‘소수민족의 권리’에 의거하여, 유구민족의 독립에 관한 연구를 유구민족으로서 끊임없이 추진해간다. 유구역사상 처음으로 창립한 유구독립에 관한 연구학회의 활동에 의해, 유구민족이 식민지라는 니가유(苦世)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민족으로서 평화 자유 평등으로 살 수 있는 아마유(甘世)를 하루빨리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 학회를 설립하고, 유구의 독립을 추구하는 모든 유구민족의 참여를 호소한다.

2013년 5월 15일 유구의 독립을 추구하여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